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❻ 몸에 쇠못 박아 백성 구한 왕



▶ 한줄요약
염부제 큰 나라의 왕인 비릉갈리는 석존의 전생으로 구도열이 남달랐다. 그는 깨달음을 증득한 노도차의 법을 듣기 위해 스스로 몸에 천개의 못을 박는다. 사람들은 만류했으나 "법을 깨달아 백성을 증득하겠다"는 그의 간절한 원력을 막을 수 없었다.

1천여 고통 맞선 전생 석존 구도심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전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팔리어로 기록된 '팔리어본'과 산스크리트 문헌 혹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채집된 이야기를 모아서 한역한 '한역본'으로 나눌 수 있다. '팔리어본'은 초기의 불교 상황,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의 수난사, 각 민족의 기원 설화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한역본'은 팔리어본 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전달되는 과정 중에 그 지역의 험난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한역된 본생담 〈현우경(賢愚經)〉 〈육도집경(六度集經)〉 〈보살본연경(菩薩本緣經)〉 〈보살본행경(菩薩本行經)〉 〈출요경(出曜經)〉 등의 경전에는 팔리어본 보다 보시와 희생의 극적인 장면이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는 석가모니의 전생의 모습이 매우 다양하게 표현돼 있다. 현존하는 한역본이 본생담의 전체를 한역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선택과 번역의 과정에서 현지의 이야기가 차용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어쩌면 본생담들은 당시의 주변 환경과 불교 신앙을 담고 있는 타임캡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까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편찬자가 수백의 본생담 중에서 선별하여 번역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당시의 지역성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한역된 경전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보시와 희생을 기록한 전생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 우연히 십자가에 못이 박힌 예수의 상이 떠올랐다. 기독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인간의 죄를 위해 기꺼이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놓아 인간에게 속죄와 구원을 가져다주었다는 희생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당시 로마 지역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 죄인을 나무 기둥에 못 박는 것이어서, 예수 또한 이러한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상을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가 있다.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이므로 예수의 고난보다 최소한 500년은 오래 됐을 이 이야기에서는 대여섯 개의 못이 아니라, 천 개의 못이 석가모니의 전생 인물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퍼붓는다. 이와 관련해서 북위(北魏)시대 445년에 고창(高昌, 오늘날 투르판)에서 혜각(慧覺)이 한역한 〈현우경〉 '범천청법육사품(梵天請法六事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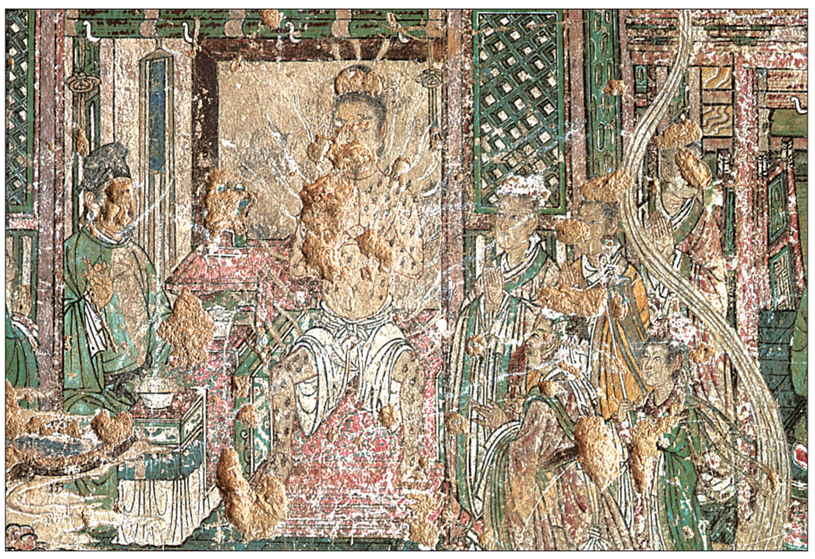


그림① 쿠차 키질 석굴 38굴 천정 부분 벽화 〈비릉갈리왕 본생도〉로 4~5세기에 조성됐다.



그림② 돈황 막고굴 257굴에 있는 〈비릉갈리왕 본생도〉로, 북위 시기에 조성됐다.

道心 높았던 석존전생 비릉갈리왕
法을 얻기위해 1천 쇠못 몸에 박아
"깨달음 증득해 백성 구제 하겠다"
중생 위한 자비·구도 보인 본생담



그림③ 중국 산서성 고평 개화사 대웅보전 서벽에 그려진 〈비릉갈리왕 본생도〉로 북송시기에 그려졌다. 사실적 표현 기법이 인상깊다.

부처님께서 지나간 세상에 염부제에서 큰 나라 왕이셨는데, 이름은 비릉갈리(毘楞竭梨)였다. 왕은 큰 자비심이 있어 백성을 항상 자식처럼 보살폈으며, 바른 법을 좋아하여 온 나라에 명을 내렸다. "누가 나를 위해 바른 법을 말해 주겠는가? 법을 알려주는 자에게 원하는 바를 모두 들어 주리라"라고 왕이 말하자 노도차(勞度差)라는 바라문이 궁 앞에 와서 말하길 "제게 큰 법이 있으니, 듣고자 하면 설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법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배운 것으로서 여러 해 동안 수고한 것입니다. 만일 왕의 몸에 천 개의 쇠못을 치게 하면 설법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노도차와 약속한 왕은 하루 8만 리를 달리는 코끼리를 통해서 노도차의 설법 소식을 온 염부제 안에 알렸다. 이 소식을 들은 신하들은 지금도 어진 왕의 은덕으로 부족함이 없어 편히 살고 있으니, 왕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그 몸에 천 개의 쇠못을 치게 하지 말라며 왕에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왕은 불도를 구하여 부처가 된 뒤에는 지혜의 날카로운 칼로 너희들의 번뇌와 고통을 끊어 버릴 것이니, 도심(道心)을 막으려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노도차에게 목숨이 먼저 끊어져 법을 듣지 못할까 두려우니, 은혜를 베풀어 먼저 설법한 뒤에 못을 쳐달라 부탁하였다.

그때 노도차는 "일체는 모두 덧없는 것이어서 태어나는 것은 모두 다 괴로운 것을… 모든 법은 공하여 실체가 없거니 그것은 진실로 내 것이 아니네"라는 게송을 마치고 곧 왕의 몸에 천 개의 쇠못을 쳤다. 이를 본 제석천이 왕에게 무엇을 구하려 이러한 고통을 겪느냐 묻자, 이 공덕으로써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왕이 서원하기를 '만일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금 내 몸은 본래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맹세하자 몸은 곧 회복되었다.

위의 이야기는 수많은 보시와 희생을 거듭하던 석가 전생의 어느 생에서 비릉갈리왕으로 태어나 자신의 부귀영화에 만족하지 않고, 백성들을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해탈시키기 위해서 몸에 기꺼이 천 개의 못을 박고 그 대가로 불법을 구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형벌은 생각만 해도 어깨가 움츠러들고 그 모습을 상상하기도 힘든데, 그만큼 백성들을 위한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슴 깊이 전달이 된다.

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가장 이른 사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쿠차(庫車)지역 키질(克孜爾) 석굴 38굴의 천정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38굴은 키질 석굴의 발전기인 4~5세기경에 조영된 석굴로서, 석굴 전체에 황금보다 비싼 라피스라줄리(靑金石=ultramarine)와 황금, 공작석(孔雀石, malachite) 등의 천연 광물성 안료를 사용하여 본생도와 불전도(佛傳圖)를 벽면에 도해하였다. 38굴의 천정에는 중앙의 천상도(天相圖)를 기준으로 좌우 각 20여 종류 총 40여 종류의 본생도가 그려져 있다. 키질석굴의 본생도는 대략 사면이 30㎝ 정도인 마름모 형태의 공간에 각 본생담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장면 하나만을 표현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8굴의 〈비릉갈리왕 본생도〉에는 나무 아래에 합장한 비릉갈리왕이 서 있고, 그 앞에 노도차가 오른손에 든 긴 못을 왕의 왼쪽 옆구리에 찔러넣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그림①)

그림을 보는 우리는 잠시 후 비릉갈리왕이 서원을 이루어 법을 얻고, 온몸에 천 개의 못을 치기 전으로 돌아온다는 결말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안타깝고 말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왕이 겪어야 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키질 석굴 38굴의 그림보다 약 100년 후 북위 시기(北魏, 386~534)에 그려진 돈황 막고굴(敦煌 莫高窟) 257굴 서벽의 〈비릉갈리왕 본생도〉는 세로 80, 가로 74㎝ 직사각형의 화면 중앙에 반가좌를 취한 비릉갈리왕과 왕의 오른쪽 가슴에 못을 박는 인물, 이 장면을 보고 놀라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괴로워하는 인물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화면의 상부에는 울음과 탄식하는 소리를 들은 제석천과 천제(天帝)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그림②)

북송(北宋) 시기인 1064년경 건축된 산서(山西) 고평(高平) 개화사(開化寺) 대웅보전(大雄寶殿)의 서벽에 그려진 〈비릉갈리왕 본생도〉는 사실적인 표현법으로 한눈에 그림의 주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고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전각의 의자에 합장을 취하고 앉아 있는 비릉갈리왕의 목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몸 전체에 빈틈없이 빼곡하게 쇠못이 박혀있는 모습이 매우 현실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화면의 왼쪽에 노도차로 보이는 인물이 오른손에 설법인을 취하고 왕을 바라보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궁인들과 신하들이 왕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온몸에 못을 치고도 고통의 내색조차 비치치 않고, 흐트러짐 없이 눈을 반쯤 감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평온하고 고요해 보이기까지 한다. 어쩌면 비릉갈리왕은 노도차의 설법을 듣고, 이미 불법을 구한 뒤여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 그림을 그린 화사(畫師)는 건물이나 인물의 표현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비릉갈리왕의 속마음 또한 이렇듯 잘 묘사하였을까 감탄스러울 정도이다.(그림③)

비릉갈리왕에게 노도차가 설법한 큰 법이 설령 범부인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천 개의 못을 살아있는 나의 육신에 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중생의 해탈을 위해 한두 개도 아닌 천 개의 고통과 맞바꾼 석존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그저 가르침을 따를 뿐이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

우공침술
개·인·지·도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신경학, 면역학적인 과학이론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락이나 경혈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운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지나치게 형식화된 경혈을 죽어라고 익히고, 그곳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전화 : 010-4054-711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한국의 민중의술
최태규 저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